

제 1 교시

국 어

1.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이 편찮으셨죠? 속히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 ②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③ 제가 늦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④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2. 다음을 읽고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의를 격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와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사례〉
A: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할까?
B: (㉠)

- ① 혼자 가면 어때?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 ② 나는 갈 마음이 없어.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래?
- ③ 글썄, 나는 별로야. 이렇게 더운데 누가 산책하니?
- ④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3.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 ①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
- ② 동생은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 ③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 ④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방 청소를 금방 끝냈다.

4.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깍뚜기가 맛있게 보인다.
- ②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 ③ 나는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 ④ 몇일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소식이 궁금하다.

5. 다음 규정의 ㉠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냇물 ② 잇몸 ③ 아랫니 ④ 제삿날

[6~7] (가)는 (나)의 개요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목: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주제: 화장품의 화학 성분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자,
• 처음: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 유발
• 중간
-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역할
- (㉠)
• 끝: 화장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 당부

(나)

여러분은 화장품의 다양한 향과 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과일이나 꽃을 넣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 비록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품에는 각종 성분이 첨가되는데요, 그중 화학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변색을 방지하며 부패를 막거나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하나로 모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향기를 오래 지속시켜 주기도 하고 화장품이 부드럽게 발리게 하며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보이게 해 줍니다. ㉢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화학 성분 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 등의 ㉣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벤은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일부 화학 물질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해 주고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이런 화장품에 어떤 화학 성분이 ㉤ 첨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피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6. (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장품 용기의 종류
- ② 화장품의 기원 및 역사
- ③ 화장품 사용의 심리적 효과
- ④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유해성

7. (나)에서 고쳐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맥을 고려하여 ‘설마’로 고쳐 쓴다.
- ② ㉢은 내용상 불필요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문맥을 고려하여 ‘부작용’으로 고쳐 쓴다.
- ④ ㉤은 ‘첨가되어 있는지를’로 고쳐 쓴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 이어 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후기에는 끊어 적기와 이어 적기가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나) 불·휘기·픈남·근브르·매아·니:뫼·씨
 꽃:도·코여·름·하느·니
 :식·미기·픈·므·른·ᄃᄃ·래아·니그·츨·씨
 :내·히이·러바·르·래·가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용비어천가」 제2장, 현대어 풀이-

8. ㉠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으려면?

- ① 불·휘 ② 아·니 ③ 기·픈 ④ ·하느·니

9. (나)와 (다)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다)	변화 양상
① 브르·매	→ 바람에	‘ㄴ’의 소멸
② ᄃᄃ·래	→ 가뭄에	방점의 소멸
③ :도·코	→ 좋고	어두 자음군의 소멸
④ :내·히	→ 내가	주격 조사 ‘가’의 등장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1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력보다는 타고난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② 가치 있는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면 피하려는 태도
③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④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태도

12. ㉠~㉣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단.”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나쁜 이서 꺼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허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 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중략>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 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하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우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때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루 태낭은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발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다에 나왔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나?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혈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흠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 이태준, 「돌다리」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14.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②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아들’이 못마땅하다.
- ③ 병원을 확장하려는 ‘아들’의 계획이 흐뭇하다.
- ④ ‘아들’이 가업을 잇지 못하는 것을 탄한다.

15. ㉠~㉣ 중 [아버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은?

- ① ㉠ ② ㉡ ③ ㉢ ④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피 독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八百) 리(里)에 ¹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²옥절(玉節)이 알피 섰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ㄴ라 흑슈(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주(東洲) | 밤 계오 새와 북관당(北寬亭)의 올라흐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비리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회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는다 몰으는다. 회양(淮陽) 네 일흠이 마초아 ㄴ틀시고. ³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태 아니 볼 게이고.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¹방면(方面) 관찰사의 소임. ‘방면지임(方面之任)’의 준말.

²옥절(玉節) 옥으로 만든, 임금이 신표(信標)로 주는 패(牌)로 관찰사의 상징물.

³급당유(汲長孺) 중국 한나라 때의 충신. 회양 태수로 좌천되었으나, 오히려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고 고을을 번성하게 하였다고 함.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전절과 후절의 대립 구조가 나타나 있다.
- ③ 3음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
- ④ 10구체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17.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며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 ②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
- ③ 자신에게 소임을 맡긴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
- ④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강 승상에게는 아들은 없고 다만 딸 하나만 있었다. 부인 소씨가 딸아이를 낳을 때에 한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소씨에게 말하기를,

“소녀는 옥황의 선녀입니다. 자미원 대장성과 연분(緣分)을 맺고 있었는데 옥황께서 소녀를 강씨의 집안으로 보내기에 왔으니, 부인은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거늘, 부인이 흥미한 가운데 딸아이를 낳으니 용모가 비범하고 거동이 단정하였다. 시 짓기와 글쓰기를 잘하고, 모르는 음률(音律)이 없었으니 여자 가운데 군자요, 총명한 지혜는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었다. 부모가 사랑하여 사윗감을 쉽게 고르지 못하고 염려하였는데, 천만다행으로 총렬을 데려다가 외당에 거처케 하고 자식같이 길러 내니, 총렬의 고귀한 상(相)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부귀 작록(富貴爵祿)은 대적할 사람이 없고 영웅 준결은 만고의 제일이었다.

<중략>

승상이 밖에 나와 총렬의 손을 잡고, “결혼과 관련하여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내가 늙은 말년에 오로지 딸 하나만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 너와 하늘이 정해 준 배필임이 분명하다. 이제 백년고락(百年苦樂)을 너에게 부탁하겠다.”

하시는데, 총렬이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여쭙었다.

[A] “소자의 목숨을 구해 주시고 또 슬하(膝下)에 두고자 하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통탄할 일이 사무쳐 있습니다. 소자가 복이 없어 양친(兩親)의 생사를 모른 채 결혼하여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승상이 그 말 듣고 슬픔에 젖어서 총렬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B] “이것은 때에 맞추어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너의 집 시조 공(始祖公)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 개국공신이 되었으니, 조금도 서러워 마라.”

하시고, 즉시 좋은 날을 택하여 혼례를 치르니,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이 분명하였다.

- 작자 미상, 「유총렬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성이 있는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 ②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바뀌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

19. [A]에 나타난 ‘충렬’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 ②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 ③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 ④ 출타 전에는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한다.

20. [B]에서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강 승상’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렬’의 부모와 교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충렬’을 구하던 당시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다.
- ③ ‘충렬’의 조상에 대한 과거 사례를 들고 있다.
- ④ 관직을 지낸 자신의 업적을 거론하고 있다.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지막으로 전문적 읽기가 있다. 이는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제 통합적 독서와 과정에 따른 독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서로 비교하여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를 쓰려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과정에 따른 독서는 ‘훑어보기, 질문 만들기, 읽기, 확인하기, 재검토하기’ 등과 같은 순서로 읽는 방법을 말한다.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목차, 서론, 결론, 삽화 등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대략적으로 훑어본다.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훑어보기를 바탕으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스스로 질문한다. 질문은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을 활용하고,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읽기 단계에서는 훑어보기와 질문하기 내용을 옆두에 두고 실제로 글을 읽어 나간다.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앞의 질문하기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메모한다. 재검토하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단계들을 종합하여 주요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정리하고 확인한다.

2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읽기의 계획과 검토 방법
- ② 독서의 개념과 원리
- ③ 질문의 원칙과 절차
- ④ 전문적 읽기 방법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훑어보기’ - 제목이나 목차 등을 보고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단계이다.
- ② ‘질문하기’ - 훑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자문한다.
- ③ ‘읽기’ - 훑어보고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 나간다.
- ④ ‘확인하기’ -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훑어보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에 개미가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개미를 일일이 세어 본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표본 조사를 하고 수없이 곱하고 더하고 빼서 나온 숫자가 10의 16제곱이라고 합니다. 10에 영이 무려 16개가 붙어서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는 숫자가 되고 맙니다.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주 거대한 시소가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는 65억의 인간이, 한쪽에는 10의 16제곱이나 되는 개미가 모두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와 우리 인간은 함께 시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존재가 개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미가 이토록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개미가 인간처럼 협동할 수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협동만큼 막강한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대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고 서로 얽히고설켜 뻗뻗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나무들 중에 개미가 집을 짓고 사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자그마치 6천만 년 동안이나 개미와 공생을 해 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에게 필요한 집은 물론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영양분도 골고루 제공하는 대신, 개미는 반경 5미터 내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개미는 많은 동식물과 서로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진화 생물학은 자연계에 적자생존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이란 어떤 형태로든 잘 살 수 있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꼭 남을 꺾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계의 삶을 경쟁 일변도로만 보아온 것 같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도 십여 년 전까지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니 살아남은 존재들은 무조건 전면전을 벌이면서 상대를 꺾는 데만 주력한 생물이 아니라 자기 짝이 있는,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종(種)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 최재천,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기』 -

23.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미는 협동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②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는 공생 관계에 있다.
- ③ 자연계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 ④ 적자생존이란 반드시 남을 꺾는 것만을 의미한다.

24.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직접 조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학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개미를 이해해야 한다.
- ③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 ④ 진화 생물학이 앞으로의 인간 생존을 결정한다.